

소식지 RE(里):강릉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첫 홍보단 소식지 제목을 ‘RE(里):강릉’으로 선정했다. ‘RE(里):강릉’의 의미는 ‘마을을 새롭게 하자’는 뜻이다. ‘Re(里)’는 다시를 뜻하는 ‘Re’와 소리가 같고 마을을 뜻하는 한자 마을 리(里)를 합쳐서 새롭게 만든 이름이다.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9월 ‘문화그룹 스콘’ 박준상 작가, ‘문화예술플랫폼 봄아’ 송성진 부장과 주민 홍보단이 함께 워크숍을 통해 소식지 제목을 선정했다. 홍보단은 지난 5월 20일 발대식을 거쳐 6주동안의 기본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한 후 6월부터 12월까지 콘텐츠 제작과 행사 취재, 인터뷰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강릉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강릉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릉시와 주민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대학,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로드맵 구축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더 살기 좋은 지역, 활력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센터장 인사말



김은숙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안녕하세요.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김은숙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화하듯 도시도 생겨나서 성장하고 쇠퇴합니다. 행정 및 상업의 중심지역할을 해왔던 도심기능이 외부로 확산되고주택 특히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교외화되면서 원도심에 거주하던 사람들도, 상업시설을 찾던 방문객도 감소하고 주택이나 상업시설은 노후화됩니다. ‘도시재생’은 쇠퇴해가는 원도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행정(강릉시 도시재생과)과 중간지원조직(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옥천동과 중앙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주문진 불당골지역에서는 새뜰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릉의 ‘도시재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강릉시 도시재생 소식지 Re(里)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재생하는 사람들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도시재생’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도시를 어떻게 재생시킨다는 건지, 재생을 왜 하는건지 궁금함 투성입니다.

여기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도 도시재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참여하고 꿈꾸는 도시재생이란 무엇일까요?



박경자

강릉시 옥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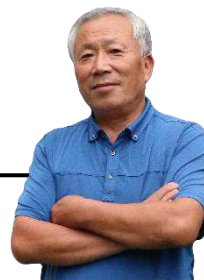
저는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고등학교 동문회장, 시의회 의원 등 활발한 사회활동 했고 현재는 옥천동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여 미래 지향적인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낡은 기존의 것에서 다시 활력을 불어 넣는 것으로 과거의 모든 문화와 예술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것을 전부 허물어 버리는 것이 아닌 보존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융합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비의 효율적인 분배와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단체나 조직의 노력이 더해 진다면 강릉의 도시재생은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함태식

강릉시청 도시재생과 과장

저는 강릉시청 도시재생과 과장 함태식입니다. 강릉시의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하면서 도시재생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옛 것을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리뉴얼’ 하여 역량강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신제품은 장점이 많겠지만 옛날의 제품들도 그 제품만의 특화된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활용하여 노후화된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이상적인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을 진행하면서 주민, 행정, 센터사이에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의 다른 입장을 이해하며 차이점을 줄여 나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유

강릉시 강남동 주민

저는 강남동에 사는 김영유입니다.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식과 함께 강남동 또한 선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시재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남동 도시재생 대학 강의를 수강하며 우리동네에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도시재생은 9통 통장 자리를 역임하고 있는 만큼 많은 먹거리와 볼거리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마련을 목표로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강남동이 1200년 전 탄생한 월화정 자산과 함께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의 공간이 이루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연

강릉시 옥천동 주민



저는 옥천동 19번길에 살고 있는 이상연입니다. 옥천동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동네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며 도시재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옥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천연염색, 우쿨레라 악기 연주, 바리스타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도시재생이란 말 그대로 '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웃 간에 정이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통해 인구를 많이 유입시켜 좀 더 활발한 옥천동으로 새롭게 재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성진

문화예술플랫폼 보마 본부장

저는 계속 문화 쪽 일을 해오다가 도시재생과 문화가 멋진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문화그룹 스콘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서 어떠한 역할이라기보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가 변화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는 공감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변화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가 더 필요하며 과거에 갖고 있던 스토리들이 도시재생에 잘 반영되어 도시가 다시 활기를 띠는 것이 도시재생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강릉의 변화보다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화

강릉시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저는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총괄 코디네이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드웨어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주민들의 니즈가 많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소통의 가교 역할은 물론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도시재생이란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주민 간의 신뢰와 정을 쌓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여건 중에서도 사회적인 활성화가 중심을 이뤄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속의 우리가 필요하며 강릉에서도 문화자원을 토대로 일자리 나 소득 창출이 이뤄지는 미래를 꿈꾸는 도시재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영춘

강릉시청 도시재생과 주무관

저는 도시재생과 재생기획계 김영춘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운영하면서 강릉시의 다방면을 바라보며 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다양한 갈등 속에 봉착되어 있지만 이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 또한 도시재생의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미래는 꾸준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움직임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통한 배움을 실행하여 일궈낸 결과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힘이자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강릉이 가진 문화유산, 멋진 자연경관 등 특색을 활용하여 강릉에 더 많은 꿈을 가져다 주고 싶습니다.



김갑성

강릉시 중앙동 주민

저는 중앙동에 살고 있는 김갑성입니다. 현재 주민과 센터 사이의 소통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에게 도시재생이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 모두가 웃을 때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가 과도기 과정이라 힘든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 바뀌어 가는 모습들이 보일 때면 미래에는 생기가 넘치는 중앙동이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앙동이 가진 고령화 문제 또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세대가 어우러진 동네를 만든다면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살맛나는 중앙동' 사업명처럼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은숙

강릉시 강남동 주민

저는 강남동 10통에 사는 정은숙입니다. 강남동 도시재생대학 모집 현수막을 보고 저희 지역이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강남동 도시재생대학 과정 중 현장답사에 참여하며 지역에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미래를 위해서 거창한게 아니라 특색 있는 지역으로 바꿔 지역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는 한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도시재생이란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발전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년층이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현재의 것에서 천천히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상

문화그룹 스콘 대표

저는 문화그룹 스콘에서 도시와 인문학을 주제로 도시재생과 인문학을 접목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이사 와서 주변 지인분들과 함께 '당신이 살고 싶은 도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확인 작업하며 나오는 데이터를 실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기체인 도시를 강제로 재생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이긴 하나 그럼에도 탄성이 떨어진 곳에 상호교류를 일으킴으로써 지역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 변화를 일으키는 밀집된 힘을 가지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생하는 사람들

흔히 사전에서는 도시재생을 쇠퇴한 도시를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지만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도시재생은 단순히 지역 활성화가 아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강릉의 오늘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일로 나아갑니다

‘옥천동 이지가지’ 성공적으로 끝나쳐

옥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들과 함께하는 전시회 개최

지난 9월 10일부터 28일까지 옥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구슬샘 문화창고’에서 주민과 함께한 전시회 '옥천동 이지가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지가지'의 의미는 '이것저것'의 강릉 사투리이다.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여러가지 마을상품을 이것저것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뜻을 담았다.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에서는 2021년 상반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열정과 재능의 장을 마련하고자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자수공예, 라탄공예, 허브마늘정원 등의 마을굿즈들을 전시하여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고자 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또한 쇠퇴해 가는 옥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마을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옥천동의 마을상품으로 발길을 이끌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도시재생의 의미를 새롭게 알릴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박경자 옥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작품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훌륭한 작품들을 공유해 자신감을 심어주어 자신의 개발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노년을 가치 있고 아름다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모든 분들의 극찬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가 진행 중인 노승희 구슬샘 문화창고 팀장은 “구슬샘 문화창고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구슬샘 문화창고의 첫 문을 여는 전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이 담긴 성과물들을 전시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번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글 | 이학주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인턴



‘중앙동 살맛터’ 문열이 개최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중앙동 살맛터' 문열이 행사 진행

9월 9일(목) 중앙동살맛터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리모델링 완공을 기념하여 문열이가 진행되었다. 중앙동살맛터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드웨어 부분으로서 서강릉 kt지사 옆에 위치해있으며 ‘살맛나는 중앙동’을 슬로건으로 주민·전문가·행정 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 한국은행 관사로 운영되어 일반인에게 폐쇄되었던 공간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선정 이래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입주하면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중추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중앙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주최하여 주민들과 함께 새롭게 재탄생한 중앙동살맛터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지며 현판식에 이어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진 및 성과물 전시회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단정된 중앙동살맛터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과 입구를 기점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진들은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센터내에서 진행된 마을브랜드인 어블뜨레 뚝뚝뚝 마을, 어르신 건강교실, 매듭공예 전시회도 볼 수 있었다.

새 단장을 마친 중앙동살맛터는 주민들이 직접 자유롭게 이용하여 삶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교류공간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중앙동의 특색을 살린 재생사업 운영공간으로 재탄생한다. 1층은 현장지원센터와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무실, 공유주방과 교육실로 2층은 동아리방, 공유서가, 마을영화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중앙동살맛터의 뒷마당은 무대 조성, 벽면의 작품 전시대 설치, 도심속 썸지공원이 조성되어 주민 누구나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김은화 센터장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동 마중물사업기간동안 양성된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그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는 역량강화 공간으로서의 중앙동살맛터”를 강조하며 “이웃이 행복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살맛나는 중앙동’의 모습을 위해 센터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복지서비스 활성화, 생활 인프라 개선의 방향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풍요롭고 넉넉한 중앙동의 모습도 이루고 싶다”고 전했다.

글 | 최주연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인턴



자연이 빚어낸 도심권 고지대 ‘부기촌’

지친 삶을 한 박자 쉬어가게 하는 소박한 풍경 부기촌 야경을 보기 위해 저녁 식사를 재촉했다. 마을은 급경사의 가파른 계단식 골목길이 얹혀 있는 협소한 도로 여건으로 평상시에도 노인이나 주민 한두 명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통행이 어렵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도심 속 오지와도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니고 있다. 마을 내 쓰러져 가는 빈집들, 주인을 잃은 우체통, 꼬불꼬불 미로 같은 계단식 골목길이 이어지고 있는 통행 여건들이 자연 구릉지로 형성된 마을이다. 예전에는 이곳은 논이었는데 그 후 임부일이 개인의 힘으로 논을 메워 마을을 만들면서 부를 일으키는 신흥 마을이라는 뜻에서 마을 이름이 생겼다. 끊어질 듯하면서도 연결되어있는 골목골목을 찾아 걷는 재미 또 한 볼거리가 쏠쏠했다. 최근 들어 급격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오래된 가옥과 부식된 담벼락 등으로 삭막했던 부기촌을 정감 있는 마을로 변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봉사활동은 먹감는 아이, 물감는 아낙네, 연 날리는 아이들 등 벽화로 생기를 되찾았다. 나는 부기촌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가파른 골목으로 향했다. 끝도 없이 쭉 뻗은 계단 난간을 잡고 오르기 시작했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에 현기증이 몰려왔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관광객들이 찾을 만한 명소가 될 수 있을 전망대이다. 오십년 중반을 살아오며 오늘처럼 더운 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좁고 긴 골목 사이의 직사각형의 건물, 감나무 앞 사이로 펼쳐 보이는 알록달록한 지붕들이 이색적인 볼거리를 더해준다.



특히, 하트 속에 넣은 마을도 점 하나 찍었다. 주차장 전망대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인 곳은 발아래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겨우 몇 발자국인데 아찔하다. 저마다 즐기는 방법도 다양하다. 골목을 빠져나와 거리에 들어서자, 마치 기다린 오래된 친구처럼 곁을 주는 이들이 눈길을 끈다. 부기길 32번길 장의사 집 마음이, 강원지역본부 냇이, 담쟁이, 지붕과 도로가 한 몸인 것처럼 덮고 있는 고추, 두 자릿수 오래된 전화번호, CCTV와 함께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능소화, 주인 잃고 혼자서 버려진 번지 없는 우편통 등 시대를 겪었다. 현재 부기촌은 아름다운 건축과 이색적인 모습 덕에 복잡한 건물 깊숙이 자리해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예전과 달리 관광객들에 발길도 일단 멈추게 한다. 내가 10년 전 만났던 원생의 집을 찾아갔다. 할머니는 고인이 되었고 고령이신 할아버지만 기와 골목을 홀로 지키고 있었다. 아이를 건네주실 때면 엄마 품인 양 안겨 웃던 이쁜 어린아이는 간 곳이 없고 주인 잃은 장난감들만 너저분하다. 손녀를 키우시던 사랑하는 노부부의 마음을 느끼기 충분했다. 아픔과 아쉬움이 남는 곳이다 부기촌은 거주민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8.2% 이상을 차지하고 비어있는 집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마을 개선사업이 시급한 곳으로 꼽힌다. 또한 이로 인해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취약지역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우러짐이 선입견 없이 누군가를 받아들인 것이 또 언제였는지 자연이 허락한 만큼 오만하지 않게 살아야 한다.부기촌의 마을을 둘러봤다. 그 속에서의 삶을 목격했으며 서로 금세 곁을 내주는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 불당골 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이란? “국민행복, 지역희망”을 비전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쪽방촌 등과 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생활기반시설, 집수리 지원 및 돌봄·일자리 등의 휴먼케어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문진 불당골은 구릉지에 밀집된 미로 형태의 주거지역으로,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거주했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이 지역에 살아오신 세월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빈집들, 오래된 건물, 낙후된 기반시설, 특히 폭 2m 미만의 좁은 도로가 많아 연탄이나 석유 배달, 분뇨처리 등 생활의 불편함 뿐 아니라 재해 등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어 거주환경 개선이 시급했던 마을이다. 이러한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불당골 새뜰마을사업은 2019년~2022년 4년간 진행되며 마을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급경사로와 소방도로 등을 정비하고 LPG보급 등 생활 위생 인프라를 개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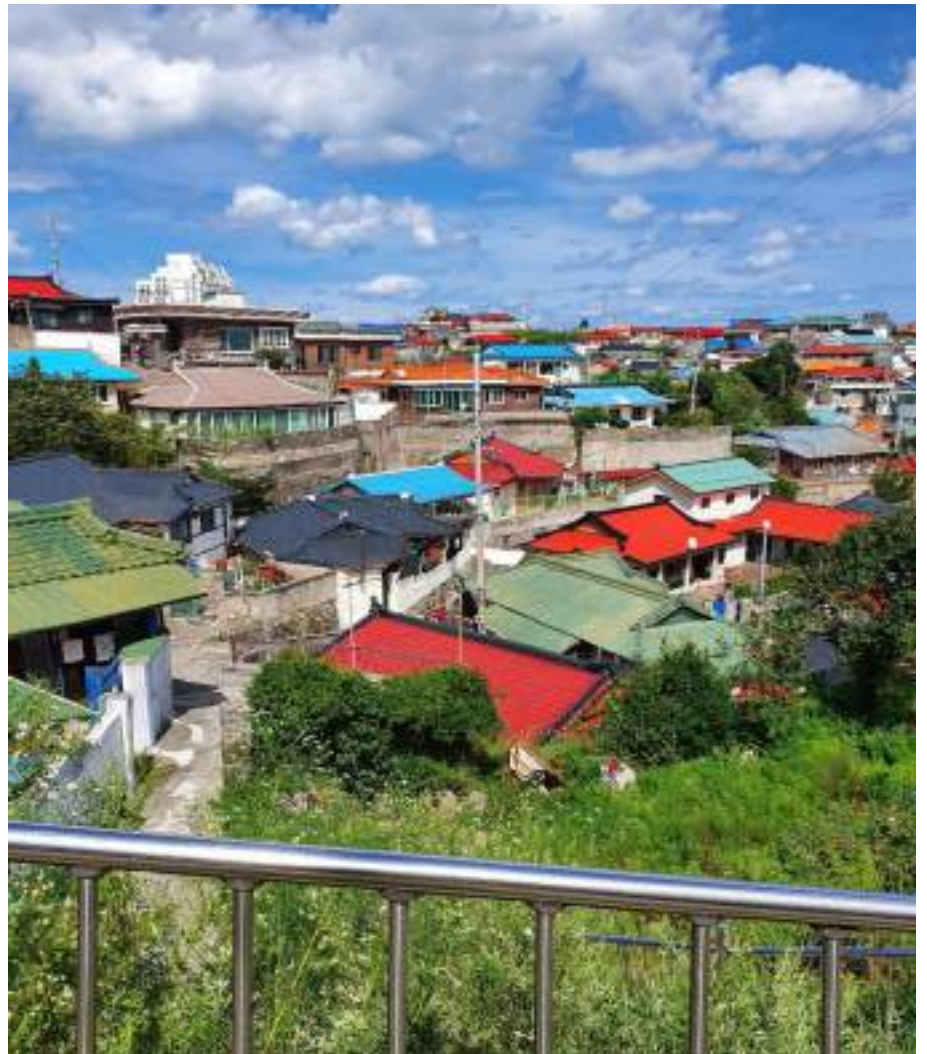
이와 함께 폐·공가를 정비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폐기하는 등 노후주택을 개선하며 집수리,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실시되며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문화 복지·마을기업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2019~2020년에는 현장수요 조사 지원으로 주택정비지원사업, 마을안길 조성, 주차장 조성, 주민 설명회, 주민협의회 창립총회, 마스터플랜 수립이 이루어졌으며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방역·방제, 소방 안전교육을 진행과 마을의 기록화 사업이 운영되었다. 2021~2022년에는 보안등 CCTV 정비,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소방도로 개설뿐 아니라 주민 일자리 창출사업을 비롯한 마을 중심거점공간 신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마을소통방 운영, 휴먼케어, 마을기업육성,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새뜰마을사업은 지자체, 주민과 협력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다. 따뜻한 도시재생으로 불리는 주문진 불당골 새뜰마을사업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이 있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기본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글 | 유은혜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새뜰마을사업 활동가



강남동의 또 다른 시작

강남동은 1998년 과소 행정동 통폐합 정책에 따라 인접한 노암동·장현동·월호평동을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행정동으로 남대천 남쪽에 있다. 현재 8개의 법정동(노암동, 유산동, 장현동, 담산동, 박월동, 신석동, 운산동, 월호평동)을 관할하고 있는 도시·농촌복합형 동이다(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강남동이 인접한 남대천은 태백산맥 동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강릉시를 지나 동해로 흐르는 하천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행사가 천년에 걸쳐 행해지는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깊은 곳이다.

게다가 월화정, 보진재, 노암터널, 김윤기가옥 등 많은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의 확장이 가능한 주거지 지역이다.

이러한 강남동은 활용가능한 역사문화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관심 및 유입의 부재, 마을활력 및 공동체 저하, 주거 및 소통여건의 불량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1순위 쇠퇴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역사문화자원 이야기, 주민조직의 활성화, 거주환경이 좋은 강남동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3기에 걸친 강남동 도시재생대학, 다 같이 돌자 강남동 열바퀴, 주민 제안사업, 주민공모사업 등,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행정(도시재생과)-중간지원조직(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민(강남동 월화마을기획단)들이 함께 도시재생 예비사업과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워크샵을 주 1회 추진 중에 있어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거버넌스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을 시작으로 강남동 도시재생대학 1기 기본과정을 5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심화과정으로 다 같이 돌아 강남동 열바퀴 및 주민제안사업을 7월까지 운영하였고 총 2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강남동 도시재생대학 1기 기본과정에서는 우리동네의 자랑거리·불편한 점 찾아보기, 우리동네에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유, 강릉시 도시재생 현장학습,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해와 운영사례, 문화가 있는 우리동네 만들기, 워크샵(소통하기) 등의 주제로 6주 동안 도시재생의 기본에 대하여 학습하였으며, 다 같이 돌아 강남동 열바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강남동을 돌아보고 주민과 전문가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주민제안사업은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이론을 바탕으로 주민이 직접 계획서를 작성 및 제안하여 사업을 직접 추진해보는 과정으로 강남동 산책지도 만들기, 월화정 화단꾸미기, 도심속 터널 사진전, 김윤기가옥 향나무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강남동 도시재생대학 2기는 6월부터 7월까지 총 6주 동안 기본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참여의 중요성, 동해시 북부권 도시재생 사례, 강릉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현장학습, 우리마을의 자원과 스토리텔링, 우리마을 둘러보기, 우리마을의 자랑거리·현안발굴이라는 주제로 도시재생의 기본에 대하여 학습하였으며, 총 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강남동 도시재생대학 3기를 강릉원주대 LINC+ 사업단과 공동 운영 중에 있다. 현재 강남동에서는 ‘강남동 월화마을기획단’이 중심이 되어 도시재생 예비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10월 13일까지 제출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 활동을 시작으로 주민이 행복한 강남동 도시재생을 위하여 사업에 몰입할 예정이다. 강남동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

글 | 전초록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도시재생 알리미 센터 사업 일정 안내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홍제동 현장학습 및 워크숍 심화과정 운영

일시 | 10월 5일 ~ 11월 9일 매주 화요일

내용 | 도시재생대학

주관 |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홍제동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 수료식

일시 | 10월 2일(토)

내용 | 도시재생대학

주관 |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강남동 도시재생대학 3기 기본과정 운영 및 수료식

일시 | 10월 7일(목), 10월 9일(토)

내용 | 도시재생대학

주관 |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강남동 현장학습 및 워크숍 심화과정 운영

일시 | 10월 14일 ~ 11월 18일 매주 목요일

내용 | 도시재생대학

주관 |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행사 일정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석

일시 | 10월 27일(수) ~ 30일(토)

장소 | 창원 마산 해양신도시



2021 강릉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일시 | 11월 중

장소 | 옥천동 '구슬샘 문화창고'



강남동 1·2·3기, 송정동, 홍제동 도시재생대학 결과보고회 개최

일시 | 11월 중

장소 | 강남동, 송정동, 홍제동 일대

센터 관련 문의사항은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033-642-399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안내

운영시간 : 09:00 ~ 18:00(주말, 공휴일 휴무)

주소 : 25552 강원도 강릉시 동부시장 3길 9 2층(옥천동 287-4)

연락처 : 033-642-3995

홈페이지: www.gursc.org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분들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